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 주관한 '생명의 대안은 없다' 대토론회가 19일 국 제신문 중앙홀에서 열렸다.

“막막하다. 이제 생명운동, 환경 운동은 성직자들이 길거리에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불행과 가난을 선택하고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갖지 않으면 생명의 대안은 없다.”

19일 부산 국제신문 중앙홀에서 열린 경부고속철도 급정산 천성산 관통반대를 위한 전국 생명연대의 '생명의 대안은 없다' 대토론회에서 김중철 녹색평론 대표는 환경과 생명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가 주관

“마음의 귀 열고 생명의 소리 듣자”

녹색평론 등 50여 단체·교사·시민 등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 대토론회 개최

한 이날 행사는 녹색평론, 습지보존연대, 통도사환경위원회를 비롯 전국 50여 환경, 시민 단체, 교사,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의 대안을 찾는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인식 전환과 삶의 태도변화를 꼽았다. 이인식 의장은 “10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 환경단체나 운동가에게 의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개 늪지·보호동식물 30여종 외면 우리 스스로 자연보호 주체로 나서야”

이주 주재 발표자로 나선 이인식 습지보존연대 의장은 생명의 문제를 풀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개개인의 생명에 대한

강조했다. 또 천성산의 가치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병인 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2개의 고층늪지, 30여종의 보호대상 동식물이 있다는 사실조차 기술되지 않은 천성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는 현 노선의 문제점을 반증한다. 지질, 지하수, 안정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 노선을 제외한 대안 노선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 최성각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회원 등은 “현재 재검토위원회가 꾸러지고 있지만, 6월 30일까지 1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백지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생명의 진정한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5시부터 8시까지 이어진 토론회 후 금련산청소년수련원으로 장소를 옮겨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를 결집한 동참자들은 “금정산 천성산 구간 백지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선재검토위원회는 무의미하며 앞으로 천성산을 지키고 생명의 대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정토론회에 나선 김석준 부산민노당 지부장, 서재철 서울녹색연합 생태부장, 박영관 부산시

부산=천미희 기자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 발대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 발대식이 25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열렸다.

지난해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를 입었던 김해 한림면과 산청군 일대의 수해복구 활동과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봉사 및 시민 서포터즈 활동으로 불교계 사회봉사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는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가 정식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것이다.

발대식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활동을 펼치게 된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는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의 창구 역할로 불교 봉사 영역을 극대화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계종 자원봉사단 단장 미산스님은 “부산 경남 지역의 불교 봉사활동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불교사상 접목 첫 등산교실 열어

한국불교산악회 6월 4~24일까지

부산등산연구소(소장 노종백)가 6월 4일부터 24일까지 제 1기 등산교실을 연다.

한국불교산악회 노종백 회장, 김석태 회원을 비롯 부산등산연구소의 강사진 대부분이 불자여서 불교 사상을 접목한 산행 이론 교육으로 관심을 모은다. 부산등산연구소의 등산교실의 특징은 산행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교육에 있다. 산과 인간이 조화를 강조하는 산행이론으로 자연보호나 환경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또한 단순히 산을 오르는 기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산악인의

자세, 산악사, 멤버쉽과 리더쉽, 자연보호, 독도법, 산악기상, 기초암벽이론, 응급처치 등 종합적인 이론 교육 후 산행 및 야영 실습을 진행한다.

한국불교산악회의 등산 계획 및 자료를 만들고 있는 부산등산연구소는 이번 등산교실을 통해 등산 저변확대를 물론, 산사와 불교문화의 접목을 포교로도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노종백 소장은 “등산이 곧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가 성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팔공산 동화사에서 사부대중이 차별 없이 참여하는 화엄무차는강이 하안거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개최된다.

동화사, 하안거중 매주 화엄무차는강

‘화엄경, 어떻게 공부...’ 첫 법석

동화사는 17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은강 입재식을 갖고,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을 초청 ‘화엄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법석(사신)을 열었다. 이날 법석에는 동화사, 해인사, 운문사 등 전통강원의 학인스님을 비롯 대구경북지역 불자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종범스님은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부분 속에 전체가 있어 만물 모두가 그 근본에 있

어서는 평등하다는 진리를 잘 새겨 자기 인식에 대한 다변화, 확대화를 통해 화엄경을 공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은강은 31일 화엄학림 강사 학담스님의 ‘화엄경의 선’, 6월 7일 동국대 교수 해주스님의 ‘화엄경의 구조론’ 등이 이어진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진각종 비로자나청소년협회는 17일 대구 국제보살운동기념공원 화합의 광장에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사진)를 가졌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대구시내 중·고교 15개 댄스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특히 관공석에는 1천여명 이상의 청소년들

이 참석,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비로자나청소년협회 관계자는 “우리 주변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효과적인 포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백의인·정복순 씨 선정

삼광사, 한글학술상

천태종 삼광사(주지 도원)는 16일 경내 지관전에서 제 16회 삼광한글

학술상 시상 및 제 10회 대학생 논문발표 대회 수상자 시상식을 거행했다.

삼광한글학술상 2003년도 수상자로는 부산진고등학교 백의인 교감(1944년생)과 신라대·경성대 정

복순 강사가 선정됐다. ‘제 10회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 논문발표대회’에서는 백의인(부산대 국문 4년)의 ‘TV광고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천미희 기자

100일간 백고좌 대법회 봉행

대구 법왕사 6월1~9월 8일까지

대구 파동 법왕사(주지 실상스님)는 6월 1일부터 법왕사 회주 정무스님의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1백일간 고승대덕 스님들을 초청하는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는 법랍 3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지역 불자들로 부터 추천 받은 1백여명의 대덕 스님들을 초청한다.

법회는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 100일간의 일정으로 매일 이어지며, 12일 법타스님(은혜사 주

지), 19일 각현스님(연꽃마을 대표이사), 27일 백운스님(‘양치는 성자’ 저자), 29일 무비스님(화엄학림 원장) 등의 법석이 펼쳐진다.

법왕사는 또 백고좌 법회전야제로 31일 시명, 도신, 심진, 법현스님을 초청,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8월 14일에는 법주사 율주 혜정스님 초청 보살계수주 대법회를, 9월 8일에는 백고좌 법회 회향기념 김성녀 주연 마당극 공연을 연다. 문의 053 766-3747. 박원구 기자

요가통해 몸·마음 동시수련

안도·묘심 스님, 주 3회 지도

요가, 선무도 등 주제가 있는 포교로 관심을 모으는 도심 포교당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건강과 정신의 여유를 되찾아주는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불가 전통의 수련법인 금강영관 수련을 통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을 건강과 정신적 안정 뿐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는 금강선원(원장 안도)은 매일 새벽, 오전, 오후 수련 시간을 통해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실연

수행으로 선무도를 수련하고 있다. 한국요가명상센터 부산지원(원장 묘심) 또한 일주일에 3회 수련 시간을 정하고 기초부터 단계별로 지도하며 몸과 마음의 조화를 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묘심스님은 “몸의 이완을 통한 내적 평온으로 본래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요가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화시키는 수행방편”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2003학년도 후기
위덕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인원

과 정	개 설 학 과	개 설 전 공	모 집 인 원
불교대학원 (석사과정, 야간)	불교학과	불교학, 불교문화학	00명
	불교대학원 (불교지도자과정, 야간)		
대학원 (석사과정, 주간)	불교학과	불교학, 밀교학, 응용불교학	00명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영문학	
	법학과	공법, 사법	
	외교통상학과	정치학, 경제학	
	정보통신학과	전자공학, 컴퓨터영어공학, 반도체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멀티미디어공학	

2. 전형일정 및 장소
가.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방법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http://www.uiduk.ac.kr/)
2) 원서접수 기간 및 접수처 : 2003년 6월 9일(월) ~ 6월 13일(금), 17:00까지 / 대학원교학과
나. 전형일시 및 장소
1) 전형일시 : 2003년 6월 17일(월) 10:00(불교대학원은 19:00도 가능함)
2) 전형방법 : 각 교과장(교사장은 당일 공고)
다. 합격자 발표 : 2003년 6월 30일(월) 10:00 대학원 교학과에서 공지

3.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1부 (인터넷 http://www.uiduk.ac.kr 혹은 본교 대학원교학과)
나. 졸업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4. 전형방법 : 서류전형(50%), 면접(50%) 5. 장학금 종류 : 성적, 면학, 특별장학금이 있음

6.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http://www.uiduk.ac.kr)를 참고하시거나 대학원 교학과 ☎(054)760-1080, 1515(불교대학원 및 불교학과 상담) 문의 바람.

위 덕 대 학 교
UIDUK UNIVERSITY

780-7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50번지
Tel : 054)760-1080~3 Fax : 054)760-1089

미얀마 남방 수련법회 및 남방 수계, 보살계
- 남방 전통 합동 천도재와 성지순례 -
※ 황금 불탑의 성지 미얀마로 신심깊은 불자님을 모십니다

행사내용
▶ 남방 전통 합동 천도재(참여불자님 모두) ▶ 탁발체험 및 1일 1종식 체험
▶ 남방수계, 보살계(수계증서 및 수료증) ▶ 미얀마 성지순례
▶ 위빠사나 수행 체험 및 강좌 (양곤, 파간, 만달레이, 뽀따야 등)

행사기간 : 2003.6.6 - 6.16 (10박 11일)
참여준비물 : 사진(반명함) 6매, 여권
참여인원 : 선착순 36명

주 관 AUNG MYAY THAR SI Temple, MYANMAR PIDAYA Temple, MYANMAR
주 최 양곤 AUNG MYAY THAR SI Temple, 만달레이 PINDAYA Temple

한국총관 사 자 암
문의 및 상담안내 033)647-3412, 011-9795-3411 / FAX 033)647-3412

성 지 순례 지

양곤	(쉐다곤파고다, 마하위지하파고다, 차욱뎃지파고다, 보타다응파고다, 아우미따자사원, 까바에파고다)
파간	(쉐다곤파고다, 아난다파고다, 뎃비닌누파고다, 따미양지파고다)
만달레이	(짜욱토지파고다, 구도도파고다, 쉐난도파고다, 만달레이언덕)
뽀따야	(신고운 따운 사원, 뽀따야 동굴)
만달레이 묘	(교울롱 사원)

※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